조계종 수익사업 본격화

사업지주회사 설립 입법 공시… '영리법인' 출범

조계종이 2017년 본격적인 수익사업 전개를 앞두고 사업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을 입법예고했다. 사업지주회사 출범에 따라 기존 사업부 내 사업계획으로 잡혀있던 관광버스 운영, 사찰 건축설계 등에 관한 다양한 사업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조계종은 11월 16일 '조계종 출판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2월 5일까지 의견수렴이 진행되는 이 령은 개정시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령'으로 변환된다.

공지된 '사업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령'에 따르면 사업지주회사는 (주)조계종출판사를 기반으로 이를 포괄 승계해 구성된다. 회사 재원은 조계종유지재단이 출자하며 △출판 및 서적의 도매 및 소매업 △기획물 제작 대행업 △미디어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제작 및 판매업 △행사기획 및 대행업 △유통업 △프랜차이즈업 △집합투자업 및 투자중개업 △부동산 중개업 및 임대업 △알선업 △전자상거래업과 각종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업지주회사의 명칭은 지주회사 출범 후 주주총회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사무실은 서울시에 두도록 했으며 업무는 조계종 총무원 내 사업부가 관장한다. 사업지주회사의 수익금은 종단 목적사업, 교육 · 포교용 도서 발간 및 무료제작 · 배포, 기타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조계종 유지재단이 출연
주주총회서 정식명칭 부여
기존 출판사 한계 탈피

가톨릭 '평화드림'이 모델

이번 사업지주회사는 가톨릭이 운영하는 사업지주회사 '평화드림'이 모델이다. 평화드림은 법인 내 5개 계열사를 두고 물품구입, 건축, 레져, 상조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년에 2000억이 넘는 매출을 내고 있으며, 이 중 상당부분이 가톨릭 재정으로 전환되고 있다.

조계종은 2010년 포교원 산하였던 조계종 출판사를 주식회사로 전환, 사내 유통사업부를 두고 생수 및 달력 판매 등을 진행해왔으나 사업 진행에 있어 사업지주회사 및 영리법인 출범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출판사가 왜 생수와 상조상품 판매를 관리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조계종은 이번 사업지주회사 설립에 대해 "2010년 6월 도서출판 조계종 출판사를 승계해 설립된 (주)조계종출판사가 6년간 종단 재정에 25억원 이상을 직접 기여해 왔음에도 종단 내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출판사라는 법인 성격으로 인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한계가 많고, 그동안 사업경험에 기반해 더 넓은 분야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법인격으로 다시 출범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관장부서로 조계종 사업부
유통 · 중개업 등 사업 전개
종단 목적사업 수익 활용 기대

건축설계 · 전세버스 · 공제조합 진행

이번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출범으로 조계종 사업부가 기획하고 있던 다양한 사업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현재 조계종 사업부가 기획하고 있는 사업은 △건축설계사무소 운영 △사찰 연계형 전세버스 사업 △불교 공제조합 운영 △태양광 발전사업 등이다.

이중 건축설계사무소 설립은 종단내 기획 검토 · 실무팀이 구성된 상태다.

이와 함께 수익사업의 실무 조력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9월 이한성 前 국회의원, 엄동수 유로모터 억셉턴스 대표이사, 장만석 울산대 초빙교수, 손상달 흥한건설 부사장, 박철성 미디어캠프 신원 대표, 이기현 삼우토탈 대표, 김공명 다올코퍼레이션 대표 등을 기획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와 함께 9월 경 NH농협생명, A+라이프, 에이튜드, 맥스컨설팅 등 4개 업체와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양진수 조계종 사업부 행정관은 "사업지주회사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중심역할을 하는 회사"라며 "다양한 사업을 모색해 불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김천 직지사 주지 법등 스님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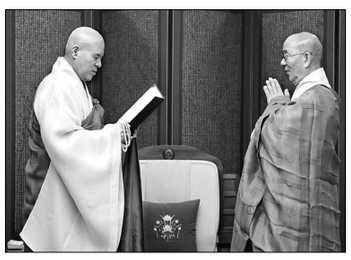
16일 "포교 · 복지 중점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직지사 주지로 법등 스님을 임명했다.

자승 스님은 법등 스님에게 "지역사회의 포교, 복지, 문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등 스님은 "승려복지에 내실을 기하고, 교구상황에 맞는 포교사업 개발,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등 스님은 녹원 스님을 은사로 1961년 수계(사미계)하였으며, 도리사 주지, 제9~13대 중앙종회의원 및 제12대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등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법등 스님(사진 오른쪽)이 자승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조계종 종무원 대상 역사문화 보존 특강

가이드라인 제시해 눈길

최근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비롯해 사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강조하고 있는 조계종이 종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11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린 '사찰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 특강에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교역직, 일반직 종무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조홍석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가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조 위원은 주변과 조화롭고 쾌적한 역사문화 환경 기반이 되기 위해 건축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 사항에 대해 중점적인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조 위원은 "문화재 주변 건축설계 시 문화재의 조망 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규모와 형태를 조정하고, 높이는 가능한 한 낮게 해야 한다"며 "문화재의 왜소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만공회 1주년, BBS 가족 '한자리에'

BBS, 12월 1일 후원회원 위한 행복콘서트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 이하 BBS)이 만공회 출범 1년을 맞아 BBS TV와 라디오 진행자들과 함께 만공회 회원들을 위한 축제 자리를 마련한다.

BBS는 12월 1일 오후 2시 장충체육관에서 '2016 BBS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만공회 출범 1주년을 맞아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BBS 출연진과 시청 · 청취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행사는 만공회 후원회원들과 그동안 TV와 라디오에 출연해 불교방송과 인연 맺은 이들, 진행자 스님들, 그리고 BBS 전 직원 등 5천여 명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BBS불교방송은 글로벌 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을 제시하는 등 국내 유일의 공중파 불교 언론사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BBS 미래 발전의 청사진도 제시할 예정이어서 보다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콘서트에는 지광 스님, 성전 스님, 월호 스님, 마가 스님, 선업 스님, 정목 스님, 자용 스님, 주석 스님, 효민 스님, 원영 스님을 비롯해 배우 전무송, 김혜옥, 가수 주병선, 고한우, 세리, 국악인 남상일 등 BBS의 전 출연진들이 무대에 선다. 이들은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대중과의 소통도 시도한다.

또한 글로벌 미디어 BBS의 새 미래를 열어가려는 사부대중의 원력을 담아 발원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선상신 BBS사장은 "지난 1년간 3만 5천명이 BBS 만공회에 가입해 프로그램 제작 환경 개선, 중계소 확충 등이 이뤄졌다"며 "모든 것은 만공회 공덕주의 정성과 원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 같은 후원 인연에 대한 감사함을 전달하고자 시 · 청취자들과 소통하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진각종 제30대 통리원 교육원 집행부 출범

11월 22일 신임 총인 및 통리원장 취임법회 봉행

교육원장 덕정 정사
총무부장 호당 정사 등 임명


11월 10일 30대 집행부 출범 직후 임명된 임원들이 종단발전을 서원하고 있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성정사)은 11월 10일 진각문화전승원 내 통리원장 접견실서 통리원과 교육원 부 · 실 및 국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30대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이 자리에서 통리원장 회성 정사는 "진각종은 모든 기관이 유기적로 연결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 타 부서와 항상 소통하고 협조해 종무행정을 수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며 "30대 집행부가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각 부서 집행부 소임자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집행부 인선을 살펴보면 교육원장에 덕정 정사(밀엄심인당 주교), 통리원 총무부장에는 호당 정사(실상심인당 주교), 교육원 교무부장에는 원명정사(대명심인당 주교), 통리원 사회부장에는 덕운 정사(유가심인당 주교), 교육원 교법연구실장 겸 교학처장에는 법경 정사(남부심인당 주교)가 각각 임명됐다.

국장급에는 통리원 총무국장 겸 기획국장에 관명 정사(선륜심인당 주교), 교육원 교무국장에 수각 정사(밀각심인당 주교), 통리원 재무국장에 수혜 정사(능인심인당 주교), 건설국장에 진광 정사(선정심인당 주교), 사서국장에 법공 정사(명선심인당 주교), 교육원 교법연구국장에 혜담 정사(혜원심인당 주교)가 임명됐다.

이에 앞서 신임 통리원장 회성 정사는 10월 28일 진각문화전승원 내 총인예경실서 회정 총인 예하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았다. 또한 11월 22일 서울 성북구 진각종 총인원서 제 12대 회정 총인 추대법회와 제 30대 통리원장 회성 정사의 취임법회도 봉행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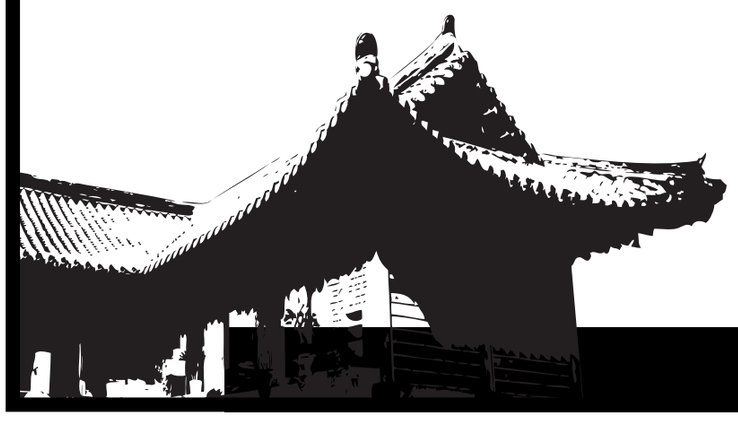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